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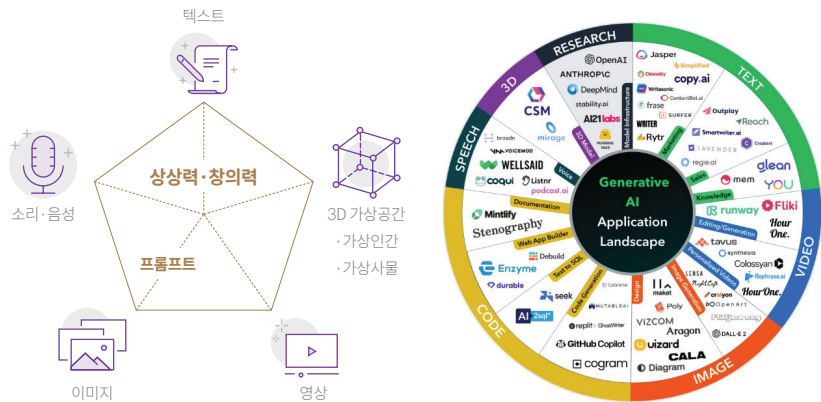
이승환 연구위원(혁신성장그룹)

생성AI와 디지털 창작 방식의 혁신

◇ 생성AI(Generative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

- 경제와 사회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생성AI에 주목
- 생성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는 AI
 - * 사용자가 자연어로 생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프롬프트(Prompt)로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생성AI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3D 등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생성
- 생성AI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향후 10년 동안 9,200조 원의 시장을 창출 전망¹⁾
 - * 사용자의 질문에 텍스트로 자연스러운 답변을 생성해주는 챗GPT는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집했고, 2023년 7월 기준 월간 방문자 수는 15억 명 수준
 - * 2023년 8월 기준, 유튜브에서 AI 도구 관련 동영상 조회 수가 이미 17억 회를 상회
- 생성AI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재화를 제작하는 슈퍼 개인(Super Individuals)이 등장²⁾
- 사용자는 자신이 상상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자연어 프롬프트로 생성AI에게 요청하면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초능력(Superpower)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생성AI 도구들은 지속 출시
 - * “생성AI가 근로자에게 ‘초능력(Superpowers)’을 부여”(맥킨지, 라리나 이)
 - * “생성AI는 강력한 기술 집합체로 생산성이 100배 향상”(유니티의 마크 윌트 부사장)
 - * “생성AI로 생산성이 200배까지 향상되고, 1인 유니콘이 등장할 것”(레플릿 CEO 암자드 마사드)

[표1] 생성 프레임과 다양한 분야의 생성AI와 도구



1) Goldman Sachs,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26 March, 2023
 2) 이승환, 「AI시대 절대 대체되지 않는 슈퍼 개인의 탄생」, 2023, p91; <https://semupdates.com>

생성시로 인한 저작권 이슈의 부상

◇ 인간이 생성시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 관련 저작권 이슈가 제기

- 카슈타노바(Kristina Kashtanova)는 생성시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그래픽 소설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를 만들고 저작권 등록을 시도
- 미국 저작권청은 ‘새벽의 자리아’에 대해 부분 저작권을 인정하고 생성시 저작물 등록 안내서를 발표(2023년 3월)
 - 미국 저작권청은 카슈타노바가 작성한 텍스트 자체와 텍스트 및 시각적 요소의 선택, 조정, 배열에 있어 관련 권리는 보호된다고 명시하였지만 미드저니(Midjourney) 기술로 생성된 저작물의 이미지는 인간 저작물의 산물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
 - ‘새벽의 자리아’ 사례를 계기로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시에 의해 생성된 소재를 담은 저작물의 등록 안내서를 발표
 - * 해당 저작권의 요건으로 인간에 의한 창작만 저작권을 인정하며 시를 활용한 창작의 경우 인간의 개입에 관한 부분을 한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
 - * 또한, 시를 활용한 생성물이 포함되면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저작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공지

◇ 생성시 관련 기업간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며 소송 등 갈등이 심화

- 오픈시, 스테이빌리티시 등 다양한 생성시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문제에 직면
 - 데이터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이미지 생성시 기업 스테이빌리티시를 상대로 약 2,3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2023년 1월)
 - * 게티이미지가 30여 년 동안 쌓아 온 1,200만 개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를 무단 사용 주장
 -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 등 3명은 챗GPT 개발사 오픈시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 오픈시와 메타가 시모델 훈련을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
 - 사라 안데르센(Sarah Andersen) 등 세명의 아티스트는 이미지 생성시 기업 스테이빌리티시, 미드저니, 데비안 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2023년 1월)
 - * 원작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웹에서 구한 50억 장의 이미지를 시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

◇ 디지털 음원 분야에서도 생성시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

- 유니버설뮤직은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등 음악 스트리밍 업체를 대상으로 시가 생성한 음악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송부
 - 생성시가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가사, 음악을 흉내 낸 음악을 만들고, 음악 생성시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수백만 개의 음원데이터 가운데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팝스타 노래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
 - * 유명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와 힙합 스타 드레이크의 신곡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던 ‘허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노래는 실제로는 더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시 버전’으로 그럴듯하게 합성한 가짜 노래로 밝혀짐(2023년 4월)
-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공문에서 음악 생성 시가 학습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 작품과 매우 유사한 음악을 만들며 시 훈련과정에 협회 회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 뉴스 분야에서도 주요 언론기업들과 생성AI 기업 간 갈등이 심화

-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은 오픈AI가 자사 뉴스와 블로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임의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챗GPT의 웹 크롤러³⁾를 차단
 - 웹 크롤러 차단 움직임은 확산 중이며, 2023년 8월 22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1000개 가운데 챗GPT의 웹 크롤링을 차단한 사이트는 9.2%에 달했는데 8월 15일 기준 5% 수준에서 급격히 증가
 - 특히 상위 인기 사이트 100개 기준 차단율은 15%에 이르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일수록 차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아마존, 로이터 통신, NYT, CNN 등 주요 기사 사이트가 대거 포함
- 뉴욕타임즈(NYT)는 자사 기사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자사 약관을 개정해 AI 훈련에 자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2023년 7월)
 - 약관에 AI 학습에 뉴욕타임즈의 텍스트, 사진, 이미지, 오디오·비디오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

생성AI혁명을 대비한 저작권 정책개발이 긴요한 시점

◇ 생성AI로 야기되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자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태계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이⁴⁾ 미국 정부와 AI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넣고 보안기술 개발에도 투자하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2023년 7월)
- 유튜브는 AI음악 원칙을 발표했으며 이 원칙에는 AI는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음악 파트너와 함께 책임감 있게 생태계를 이끌고자 노력(2023년 8월)
 - 유튜브는 생성형AI가 상표 및 저작권 남용, 잘못된 정보, 스팸 등 기존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니버설 뮤직과 협력하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 '유튜브 뮤직 AI 인큐베이터(YouTube Music AI Incubator)'를 출범
- 어도비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작자 보호 기술 적용 및 지원 방안을 모색 중
 - 어도비는 자신이 축적한 3억 3,000만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 무료 사진, 공공 도메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훈련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
 - 또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작품 속에 이름과 날짜, 활용한 도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AI 학습에 활용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한 창작자에게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3) 웹 크롤러는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데이터 수집하는 자동화된 프로그램

4)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앤스로픽

- 저작권 논란이 지속되자, 기업 간 학습데이터 사용대가 협의 등 상생 방안을 모색 사례도 등장
 - 오픈AI는 AP통신과 기사사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2023년 8월), 데이터기업 셔터스톡(Shutterstock)과도 6년 동안 데이터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 * 오픈AI는 셔터스톡이 보유한 이미지, 비디오, 음악과 관련 대규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셔터스톡은 오픈AI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플랫폼에 연결해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 구글도 뉴욕타임즈 기사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대가로 3년간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협의(2023년 5월)
-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의 생성AI 도구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 시 대신 배상한다는 방침을 발표

◇ 건전한 생성AI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

- 생성AI가 만든 사진이나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넣는 움직임이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중
 - 구글 딥마인드가 생성AI 제작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술을 '구글클라우드 넥스트23' 컨퍼런스에서 공개(2023년 8월)
- 저작권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작가의 스타일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도 등장
 - 시카고 대학교 글레이즈(Glaze)팀은 온라인에 게시한 예술가의 작품이 AI 데이터 학습에 포함되더라도 원본과 다른 형태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
 - 네이버 웹툰은 다수의 창작자가 함께 사용하는 생성AI가 아닌 개인 맞춤형 생성AI를 개발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 생성AI가 가져올 혁신과 권리자 보호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개정 방향 논의가 필요

- 생성AI로 관련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주요국들은 저작권 문제 해결, 자국의 AI경쟁력과 AI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미국 저작권청은 AI 창작물 등록 가이드라인 발표하였고, 유럽연합(EU)은 AI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등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